

[illegible]

국내

1.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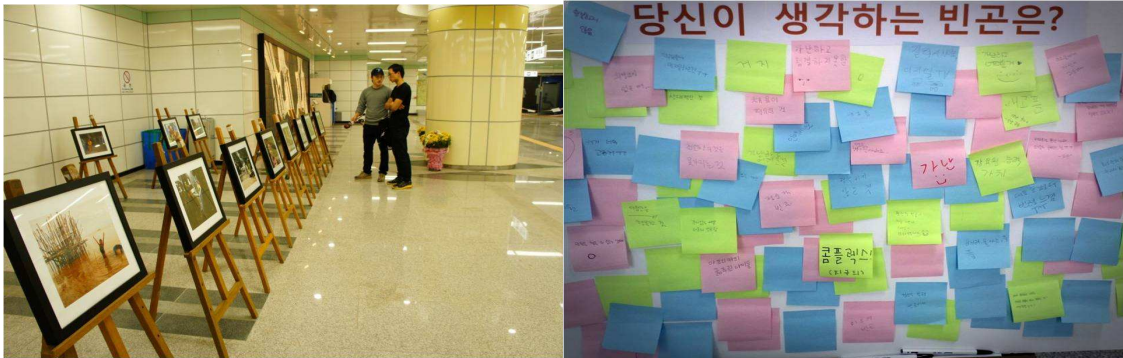
+ 10월 28일 (일)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한국 사회 빈곤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의 증거물인 다양한 행사나 단체의 기념 티셔츠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의 수익금은 필리핀 누에바에시자 지역에서 그 지역의 빈곤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 조직의 활동 후원비로 전달되며, 청년들의 연대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자 했다.

2. 부산



+ 10월 23일(화) 부산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이경애 교수)' 강의를 듣는 70명의 대학생들과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지구시민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세계화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의 빈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 대구



+ 10월 27일(토)~29일(월) 3일 동안 대구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역사에서 라온아띠 단원들의 현지 활동사진 전시를 통해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빈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라에서의 국제자원활동 후, 단원들이 느꼈던 진짜 빈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4. 제주



+ 10월 27일(토) 제주시내에 위치한 문화카페에서 제주 지역의 청년들과 빈곤과 관련된 영화를 함께 보고 영화 내용과 관련된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커피를 나눔으로써, 빈곤과 공정무역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일회성의 캠페인이 아니라 캠페인 참가자들 모두 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캠페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메일링을 할 계획이다.

5. 아산



+ 11월 8일(목)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진행된 아산청소년거리문화축제'발악' 현장에서 아산청소년YMCA'다각' 회원들은 빈곤퇴치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아산 시민들에게 MDGs를 설명하고, 자신이 실천할 항목에 서명을 해보는 액션을 했다. 이

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YMCA '다각' 회원들은 빈곤을 주제로 자료 찾기 및 토론을 하는 사전 모임을 가짐으로써 캠페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6. 진주



+ 10월 21일(일) 진주 시내 중앙로타리에서 진주YMCA 고교Y 친구들이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세계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진주YMCA는 라온아띠 방글라데시팀이 국내훈련 지역NGO인턴십을 받는 곳이기에, 이들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단원들의 사진으로 방글라데시 지역의 빈곤 상황을 진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작은 실천 적어보기와 모금을 함께 진행하였다.

7. 수원



+ 10월 21일(일) 수원역 남측 광장에서 수원 청소년YMCA회원들이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세계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MDGs를 알리고, MDGs 로고와 함께 즉석 사진 인증샷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다짐을 직접 적어보기도 하였다.

8. 안산



+ 10월 27일(토) 안산 중앙동 광장에서 안산 청소년YMCA 회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라온아띠 빈곤퇴치 캠페인을 설명하고 'We can End Poverty'라는 피켓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9. 여수

+ 10월 20일(토)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진행 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라온아띠 빈곤퇴치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였다. 여수YMCA에서 국내훈련을 받은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의 활동을 소개하고, 라온아띠 빈곤퇴치 캠페인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빈곤퇴치를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의미로 자유투 던지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10. 춘천



+ 10월 17일(수)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춘천 청소년YMCA 회원들이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당일인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알리고 빈곤 아동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적기, 사랑의 온도계 채우기, 빈곤 퇴치 화이트 밴드 판매를 통한 모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캠페인을 하였다.

11. 대전



+ 10월 20일(토)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 된 청소년 축제에서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MDGs를 설명하고, 각 항목 당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천을 약속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환경 제품들을 선물로 제공했다.

국외

1. 동티모르 딜리



+ 10월 19일(금) 딜리YMCA 센터에 수업을 들으며 오는 아이들과 함께 위생 보건과 관련된 빈곤퇴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라온아띠 동티모르팀은 한 달간의 활동기간 동안 센터 주변 지역의 아이들의 잦은 눈병과 감기를 발견하고, 이러한 질병 또한 빈곤의 원인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빈곤퇴치를 위한 질병 예방 방법으로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손 씻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 방글라데시 비리시리



+ 10월 17일(수) 비리시리YMCA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조학교의 학생들과 마을의 중심에 있는 시장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전세계의 교육빈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공유하고 그로 통해 빈곤 퇴치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캠페인을 도와준 10명의 현지 청년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문제에 더욱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3. 스리랑카 모라투와



+ 10월 16일(화)~23일(화)까지 약 1주일 동안 스리랑카팀은 모라투와 전역을 돌아다니며 MDGs의 여덟 가지 각각의 목표에 따라 지역에 맞는 실천사항들을 고민해보고, 여덟 가지의 실천사항들을 직접 행동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동영상

<http://www.facebook.com/groups/130033443717637/#!/photo.php?v=466251180085302>)

4. 인도 뭄바이



+ 10월 15일(월)~19일(금)까지 인도팀은 활동하고 있는 Andheri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해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활동가, 마을 주민 그리고 청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던 과정 자체에도 큰 의미를 두었다. 더 나아가 뭄바이는 비교적 교육 프로그램이 취약하였기에, 교육 이슈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5. 캄보디아 시엠립



+ 10월 20일(토) 캄보디아팀은 활동하고 있는 시엠립 시내에서 현지 사람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MDGs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였다. 또한, 관광지로 유명한 시엠립이지만 한편 이 곳에 존재하는 빈곤에 대해서도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적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였다.

6. 태국 산캄펑



+ 10월 26일(금)~28일(일)까지 태국팀은 산캄펑YMCA 및 주변에서 '현명한 소비'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의 주제를 선정하면서 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치에 대한 무관심, 아동노동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스텝들과 회의한 결과,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일상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고,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지역이기에 '소비'와 '환경' 그리고 '빈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을 하였다.

7. 필리핀 상파블로시티



+ 10월 17일(수) 필리핀팀은 상파블로시티 시내의 쇼핑센터에서 지역의 빈곤 이슈들을 알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퇴치에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 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DGs 2번(초등교육의 보편화 달성)과 8번(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캠페인 당일에는, 직접 제작한 배지와 팔지 판매를 통한 모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외부 홍보, 지역 교육감을 초청하여 교육의 빈곤에 대한 스피치, 화이트 밴드 리본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